



# 안치환

혁명의 열기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던 80년대를 지나 대망의 90년대가 되도록 혁명은 오지 않았다. 대신 우리를 찾은 것은 배반의 3당 야합과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먼 나라의 우울한 혁명의 소식이었다. 80년대를 온몸으로 뚫고 온 시인과 시인과도 같았던 노(老)혁명가의 죽음 소식이 뒤를 이었다. 사람들은 그토록 아름답다고 찬미하던 민중, 민족, 계급과 같은 말 대신 '시민'과 '개혁'을 이야기했고 서점 가에는 등 푸르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생선의 이야기가 한점의 비린내도 없이 팔려나갔다. 환멸과 체념의 시기를 버티는 것은 도저한 침묵의 힘이지만 우리는 90년대의 어깨를 두드렸던 안치환의 노래가 우리 곁에 함께 있었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 홀로서기 '1+2' 앨범

연세대학교 노래패 울림터에서 노래운동을 시작한 안치환은 노래패 '새벽'과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거쳐 90년대 초 자신의 솔로앨범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조직운동의 기풍이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답게 솔로가수들보다는 노래패 중심의 활동이 강했던 민중가요계에서 그의 솔로음반은 이채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의 목소리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노래패의 활동과는 달리 솔로가수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음반은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한 듯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었다. 타인의 힘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는 팀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는 떠남과 비움의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이제 1+2라는 제목의 혼합음반으로 남아있는 안치

환의 초창기 앨범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노력의 순간으로 기억해 두기로 한다.

안치환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것은 1993년에 내놓은 그의 3집 Confession부터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무너진 소비에트의 담장 앞에서 혹은 또 한번 꿈꾸었던 대통령선거 혁명의 좌절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실패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 혹은 드러내놓은 듯 했다.

## 80년대의 열정을 꺾िए 내는 목소리

혹독하게 앓은 반성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의 육성은 지극히 단순해진다. 단순한 말 몇 마디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은 그 단어와 어투를 선택하기까지 쏟아 부은 눈물과 한숨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 비트가 사라지고 나지막해진 목소리로 그는 사람들이 떠난 광장의 침묵을 주목하며 절제된 목소리로 자신의 고백을 시작했다. 타인의 핏속으로 뛰어들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린 열정의 쓸쓸한 그림자를 호출해내는 그의 시선이 없었다면 우리의 80년대는 참으로 앙상하게 추억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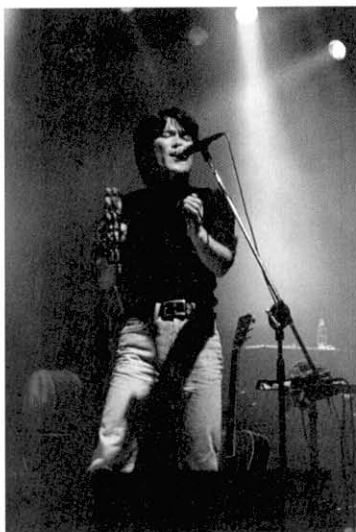
그러나 억만년 전에 도착한 별빛 같은 그리움으로 만난 우리들이기에 다시 만인을 위한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설파하는 그의 목소리는 개인적 서정과 집단적 당위 사이를 절묘하게 연결해내는 힘이 있었다. 이론과 당위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삶과 존재로서의 운동을 고민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이의 고뇌가 담겨있는 안치환의 3집은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는 수작이다.

홀로 설 자리를 제대로 찾은 그는 수많은 개인콘서트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어법 찾기에 더욱 몰



두했고 2년 뒤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히 한 네 번째 앨범을 내놓았다. 안치환은 3집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보기 시작한 거친 목소리의 ROCK 어법을 전면화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팽창하는 자본의 물신화에 기반 한 신세대 담론과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90년대의 중심부에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며 고도성장의 단 열매에 취했다. 서태지의 랩이 대중음악을 핵폭탄처럼 강타해버린 그 자리에서 어쿠스틱 기타와 신디의 소박함만으로는 더 이상 시대를 뚫고 갈 수 없음을 읽어낸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내부로 침잠하는 3집의 고뇌를 거쳐 우리가 꿈꾸었던 꿈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기를 독려한 그의 목소리는 포효하는 맹수처럼 뜨거웠다. 문민정부의 유연화 전략 속에서 열려가는 시민의 공간과 성장하는 라이브 무대에서 그는 노찾사가 활동을 중지하고 김광석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 냈다.

‘내가 만일’의 엄청난 성공은 안치환에게 쏟아지는 열광만큼이나 많은 비난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민중과 대중 혹은 민중음악과 대중음악의 간격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은 바로 또 다른 세계를 바라는 이들의 역량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 아니었을까? 노찾사가 80년대의 모든 것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듯 어찌면 안치환은 90년대 우리 운동의 성장과 변화, 시도와 한계를 대별해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세상을 바꾸려한다면 만인의 일상에서 피어나야 하는 것, 때로는 술자리에서 때로는 연애편지에서 때로는 가두에서 장삼이사의 입으로 불리워져야 할 것이라 볼 때 때때로 안치환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과도한 도덕주의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안치환은 4집의 성공 이후 ‘바위처럼’과 함께 90년대 민중가요 최고의 히트곡으로 남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밴드 ‘자유’와 함께 더욱 락 어법이 무르익은 그는 수만이 운집한 라이브 무대와 소극장 공연을 모두 성공시키는 내공을 쌓아갔다. 그러면서도 80년대의 노래들만으로 꾸며진 노스텔지어 음반과 김남주 현정음반을 내기도 했던 것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과거를 현재화시키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이제 정규앨범만 무려 9장을 가진 중견가수로 성장한 그는 그러나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 그의 노래가 없었다면……

미선이와 효순이의 주검 곁에 놓인 운동화를 노래하고 반전 1인 시위에 나서는 그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이야기 한다. 또 매주 그라운드에서 날랜 골잡이로 펄펄 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청춘이다. 아직 그의 노래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만약 그의 노래가 없었다면 우리의 90년대는 얼마나 팍팍했을 것인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인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은 오늘, 일신우일신 하는 그의 노래들이 여전히 현재형의 희망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서정민갑

진보적 음악운동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다. 공연기획, 음반제작, 음악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다. 문화와 관련한 자유로운 글쓰기도 즐기고 있다.